

## 우리는 지름신의 후예들

1999년

국내 최초로 핸드폰 게임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00년 10월 세계 최초로 핸드폰용 자바게임을 개발한 게임업체 컴투스(Com2us)의 사내 동호회 질러단은 게임만큼이나 재미있다.

“동료의 펌프질에 의해 나에게도 지름신이 왕림하셨도다.”

이는 질러단 회원들이 즐겨 쓰는 말로, 풀이하면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동료가 사는 것을 보니 자신도 사고 싶은 충동이 생겨 결국 사고야 말았다'는 뜻이다. 질러단은 새로운 제품이 출시하기 전부터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가 출시와 동시에 물건을 사서 써보고 평가하는 것을 즐긴다. 사용하다가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되팔면 그만이다. 한마디로 얼리어댑터(Early Adapter)인 셈이다.

IT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이기에 새로운 IT제품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은 당연지사. 그동안 꾸준히 질러온(?) 덕분에 질러단 회원들의 책상에는 DMB핸드폰, 초소형 노트북, MP3플레이어, PDA, PSP, PMP, 디지털카메라 등 최첨단 제품들이 가득하다.

이들 대부분은 일명 '업글병'이라는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는 탓에 '지름' 또한 계속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1주일에 2번 이상 물건을 구매한다는 어느 회원의 경우 아예 단골 택배기사가 있을 정도. 그밖에도 옥션에서 제품을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능력을 가진 옥션의 달인에 이르기까지 질러단 회원들의 이력은 놀랍기만 하다.

질러단이 사내 정식 동호회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로 각 팀의 얼리어댑터들이 뭉쳐 동호회로 활동하면서 이들의 '지름'은 더욱 활발해졌다. 현재 총 회원 28명의 질러단은 사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산 제품을 공개하고 장단점을 적어 필요한 이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게다가 자신에게 필요 없게 된 물건들을 커뮤니티 상에 올려 활발한 사내 중고매매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지름'에 대해 무모하다거나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자신들의 IT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더러, 단지 비싼 물건을 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맞는 제품만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느 사이트가 가장 싸다든지, 어떤 신제품이 출시됐는지 하는 정보를 공유한다.

퍼블리싱팀에 근무 중인 신동하 동호회장은 아직 멀쩡한 핸드폰을 놔두고 최신식 핸드폰을 다시 구입해 쓰고 있는 질러단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를 밝혔다.

“아무래도 핸드폰 게임회사이다 보니 우리 회사가 만든 게임이 안 되는 핸드폰은 그때그때 팔아버리고 새로 최신식 핸드폰으로 바꿔요. 새로운 게임 추세를 알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무조건 값비싼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물건에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구입한다고 강조하는 질러단 회원들. 미래의 IT업계를 이끌어가는 얼리어댑터로서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